

커먼즈 패러다임과 기본소득

정남영 독립연구자(전 가천대 교수)

남성은 몸이 일할 만한 상태일 때 일을 하는 한에서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죽는 날까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여성은 몸이 일할 만한 상태일 때 일을 하는—살림을 하거나 아이들을 키우거나 하는—한에서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죽는 날까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D. H. 로런스, 1915년 2월 12일 버트런드 러셀에게 보낸 편지.

우리는 삶형태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서있다. 근대 이후 자본이 스스로를 (재)생산하면서 사회적 삶을 (재)생산해왔고 이 방식이 지구 전체를 포섭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결과로 지구에서의 삶이 크나큰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경제가 삶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에서 커먼즈 패러다임이 자본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기본소득(보장소득, 시민소득)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 패러다임의 주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말하고자 한다. 지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상세히 설명되지 못한 채로 제시될 것이다. 이는 다른 곳에서 (꼭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보완되리라고 생각한다.

삶과 자본주의

스피노자Baruch Spinoza에 따르면 한 사회의 상태의 핵심은 그 구성원들의 활력이 협동적으로 연결되어 도달한 상태 즉 “각 개인의 활력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해 인도되듯이 인도되는 다중의 활력^{potentia}”¹⁾의 상태이다. 이는 곧 그 사회의 삶의 상태이다. 그리고 삶의 관점에서 경제란 몸들이 모여 이룬 ‘더 큰 몸’으로서의 다중의 활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도 다중의 활력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방해하는가의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맑스Karl Marx의 자본분석의 장점은 이 측면을 균형 있게 포착한 데 있다.

사실 활력의 유지와 증가 그리고 ‘더 큰 몸’의 형성은 생명이 지구에 출현한 후 진화해온 과정의 핵심이다. 단세포생물에서 생명이 출현한 후 현재의 지구 규모의 인간의 삶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생명체에서 고도로 복잡한 유기체로 변해온 삶은 항상 두 가지 유형의 상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현재의 상태의 유지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더 고도의 상태로의 상승이다. 전자를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는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의 첫째 측면 - ‘생존’ - 이

1) 스피노자, 『정치론』3장 2절.

라고 부르고 후자는 호메오스타시스의 둘째 측면 - ‘미래로의 투사’ - 이라고 부른다.²⁾

스피노자의 용어를 빌자면, 전자는 ‘코나투스(conatus)’(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 후자는 ‘아모르(amor)’(다른 몸과 함께 더 큰 몸의 형성)에 상응한다. 이 글에서는 그냥 전자를 활력의 유지, 후자를 활력의 증가라고 부르기로 하자. 전자가 환경과의 평형관계의 유지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환경과의 새로운, 더 활력있는 관계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만일 전자가 없었다면 생명은 출현하자마자 스러지고 말았을 것이며, 후자가 없었다면 아직도 지구는 박테리아들만의 세계일 것이다.

어떤 환경을 가정할 때 그 환경 속의 몸들의 활력이 잘 유지되고 더 나아가 증가되려면 힘들의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³⁾ 호메오스타시스란 힘의 출입을 조절하는 것이지 들어온 힘을 놓지 않고 구두쇠처럼 꺾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 안의 모든 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힘의 흐름이 원활할 때 그 환경 자체가 하나의 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맑스가 자연을 인간의 ‘비유기적 몸’이라고 말했을 때 맑스는 지구 전체가 하나의 몸이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본주의의 출현은 이 큰 몸이 분리되는 과정, 인간의 유기적 몸과 비유기적 몸 사이의 물질대사가 단절되는 과정을 전제로 일어났다. 국가가 맹활약을 한 이른바 시초축적 과정은 바로 이러한 분리로 향한 길

을 다지는 과정이며, 맑스가 말한 ‘소외’의 핵심도 (무슨 추상적인 본질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바로 이것, 즉 힘들의 흐름의 단절이다. “역사적과정은 지금까지 결합되어 있었던 요소들의 분리였다. 그 결과는 따라서 요소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것에 대해서 부정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에는 (잠재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자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잠재적으로) 자본이 존재한다.”⁴⁾

자본주의와 생산력의 발전

물론 자본주의가 단절과 분리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삶권력(biopower)인 한에서 자본은 “살게 만들고 죽게 ‘놔두는’ 권력”이다.⁵⁾ 자본의 ‘살게 만드는’ 측면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맑스가 명시한 “자본의 사명”인 “노동의 생산적 힘들의 발전”(325)을 달성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인류가 삶의 유지를 넘어 삶의 “전진적 재생산 과정 즉 항상 더 확대되는 풍요로움을 낳는 재생산과정”(325)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데 자본이 기여한 바이다. 물질의 흐름이라는 주제와 연관해서 말하자면, 자본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맑스가 “외부교역이 주는 문명화하는 영향”(256)이라고 말한 것, 네그리-하트가 말한, 사회적 관계와 삶 형태를 창출하는 자본주의의 힘이 바로 그것이다.

2) Antonio Damasio, *The Strange Order of Things*, p. 24.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 Kindle Edition. 다마지오는 ‘homeostasis’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homeodynamics’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더 선호한다. 자기조직화의 역동성을 더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3) 나는 이 글에서 대체로 ‘힘’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활력’은 좁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모든 사물은 그 자체로 힘이다. 그러나 힘이 ‘활력’으로 작용하는가 아닌가는 작용대상의 특성과 작용하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거의 모든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은 인간에게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파괴력이 아닌 ‘활력’이 아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일반적으로 활력의 담지자인 물질이라도 홍수의 경우처럼 많은 양이 한데 모여 움직이면 거대한 파괴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Karl Marx, *Grundrisse: Foundations of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ough Draft)*, trans. Martin Nicolau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3, p. 503. 앞으로 이 저작에서의 인용은 면수만 본문에 표시하기로 한다. 인용 면수는 편의상 펴낸 영어본을 기준으로 했으나 우리말 옮김은 독일어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어본: 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 II, III, 백의, 2002.]

5) Michel Foucault,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6-77*, trans. David Macey, London: Picador, 2003, p. 241.

새로운 흐름이란 새로운 생산능력과 새로운 욕구를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삶형태로의 전진을 향한 벡터인 것이다.

맑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이러한 ‘사명’의 정점에서 자본 이후의 사회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 놓는다. 이 조건이란 객체의 측면에서는 전지구적 연결성이며,⁶⁾ 주체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구 규모로 전면화된 연결관계를 지성과 감성에 내장한 ‘사회적 개인’의 출현이다.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그 사명을 다한 후 죽은 피부처럼 벗겨져나갈 것으로 추론한다. “인간의 활동이 취하는 마지막 형태의 노예상태—한편으로는 임금노동,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은 따라서 이렇게 피부처럼 벗겨지며 이러한 탈피는 자본에 상응하는 생산방식의 결과이다.”(749) 그러나 “죽게 놔두는 권력”으로서의 자본이 행한 일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사실 “죽게 놔두는”이라는 말은 불충분하다. 흐름의 단절을 바탕으로 출현하였으며 자신의 증식을 위해 삶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본은 그 본성대로 물질의 흐름에 단절과 왜곡을 가져오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론』1권 15장 10절과 3권 47장 5절에서 맑스가 짚은 핵심은 ‘인간과 토지 사이의 물질대사’의 교란이다. 토지는 인간의 또 다른 몸, 즉 ‘비유기적 몸’의 주요한 일부이다. 이 몸이 파열된 결과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환경파괴와 그에 따른 기후위기이다.

자본이 행한 더 치명적인 일은 앞에서 말한 자본주의적 주체성의 형성을 통해 일어난 일, 즉 많은 사람들을 삶에 대한 감각, 삶을 위한 감각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이다. 이제 자본이 삶을 위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삶이 자본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라는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 속에 굳게 자리잡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본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감지하는 감각이 삶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감지하는 감각을 압도하게 되었다. 삶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감지하는 능력을 뇌과학자들은 ‘감정가(感情價)’(valence)라고 부른다. 다마지오에 따르면 ‘감정가’의 기원은 신경체계와 정신mind이 출현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생명의 역사 전체에 걸쳐 지속되어온 능력을 훼손한 것이다. 『1844년 경제철학수고』에서 맑스가 말한, 사적 소유가 가져오는 “모든 감각들의 순전한 소외”는 주체성의 구성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결코 (정치나 경제보다 부차적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문화적’이기만 한 현상이 아니다. 삶에 대한 감각을 잃은 집단은 아무리 높은 생산력을 가지더라도 삶을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경제를 이루는 데 큰 결함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사용가치를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용가치란 재화가 가진 특이한 힘을 가리키며 바로 이 힘이 생명체의 활력과 조우할 때 그 생명체에 감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치를 의미하는 ‘valor’(=value)는 라틴어 ‘valere’(활력이 있다, 건강하다)에서 왔으며 이에 따르면 ‘가치있다’는 ‘활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생산된 재화의 경우 그 재화의 사용가치 즉 힘은 ① 노동력의 지출을 통해 형성되며 ② 재화 사용자(소비자)의 활력과 만나서 (일반적인 경우) 사용자의 활력을 증가시킨다. 함께 자유로운 삶의 공동체라면 ①과 관련해서는 지출된 노동력을 온전한 상태로 보전^{補填}해줄 의무를 진다. 구성원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공동체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②와 관련해서는 활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분배를 기획할 의무를 진다. 잘못된 분배는 재화의 낭비 및 구성원의 활력의 감소를 낳을 수 있고 그 결과로 공동체의 활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6) 여기에는 자연과학의 발전, 그리고 그 지식의 기계와의 결합(‘일반 지성’)이 포함된다.

자본주의적 방식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력의 지출, 특히 과잉지출(잉여 노동 → 잉여가치)이 이윤 증식의 원천이 되며 자본가의 사유재산을 불러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간주된다. 노동자의 지출된 활력을 보전하는 의무는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주는 것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⁷⁾ 재화의 분배과정은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자본가는 물건을 판매하여 손에 판매대금을 쥐는 순간 그 판매된 재화(힘의 담지자)의 향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결국 화폐의 흐름이 물질적 힘들의 흐름을 가리게 되는 것이며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환경파괴 및 그 결과로서의 기후위기인 것이다.

커먼즈 패러다임

‘더 큰 몸’을 형성하여 더 증가된 활력의 관계를 구성하는 원리가 바로 ‘공통적인 것’이며,⁸⁾ 이 원리의 실현태가 바로 커먼즈(공통체)이다. 이것이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과 커먼즈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이다.⁹⁾

자본은 생산적인 한에서는 ‘공통적인 것’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자본이 제고한 생산력의 핵심이 바로 ‘공통적인 것’의 확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은 오로지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며, 이제 이 착취(사회적 생산의 결실을 사유재산화하는 것)라는 목적 자체가 삶 공동체의 전개에 장애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달리 커먼즈 패러다임은 자본에 의한 매개 없이 순전히 삶에 바쳐지는 경제를 기획한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활력의 유지를 견실히 확보하고 흘러넘치는 활력이 삶의 번영에 집중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여기에는 모두의 재화인 공통의 부(혹은 ‘공통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의미의 부는 서로 협동관계로 연결된 ‘다중의 활력’ 자체이지만,¹⁰⁾ 이 활력의 객체 측면의 조건으로서 모두에 의해 공유되는 재화가 필요한 것이다.¹¹⁾ 공통의 부는 구성원들의 활력의 재생산에도 할당되고 여분이 있으면 새로운 삶으로의 도약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공통의 부는 자본주의에서라면 사유재산으로서의 자본의 증식에 들어갈 것이고 따라서 그것의 사용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즉 자본가들 및 자본가들이 위임한 자들에게 맡겨질 것이다. 커먼즈에서는 모든 것이 공동으로 생산되고 그 분배와 비축이 모두의 논의에 의해 결정된다.

7) 임금의 부족분(여기에는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의 임금도 포함된다)을 보충해주는 복지기금은 비록 그것이 노동자들이 힘이 있었을 때 제도화된 것일지라도, 노동자의 임금이 지출된 노동력의 재생산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기에 들어와서 등장한 가계부채는 임금이 노동력 재생산에 못 미치는 정도가 더욱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말스는 「제임스 밀에 대한 논평」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예외적인 것, 규칙이 아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제 이것이 규칙이 되었다.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는 고전경제학자들과 말스가 분석한 자본주의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인가.)

8) 이런 의미에서 ‘공통적인 것’은 단지 인간 역사의 특정 국면의 소산이 아니라 생명 진화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작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마지오는 긴 생명 진화의 과정에서 작동해온 “협동의 원칙”을 이렇게 설명한다. “협동의 원칙은 항상 같다. 유기체들이 다른 유기체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얻는 대신에 무언가를 포기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들의 삶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박테리아든 유핵 세포든 세포조직이든 장기들이든 일반적으로 독립성을 포기한다. 그 대신 그것들은 공동체(커먼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즉 협동적 배치로부터 생기는 재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ntonio Damasio, *The Strange Order of Things*, p. 54.

9) 실제로 ‘커먼즈’의 정의는 단순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데이빗 볼리어 David Bollier의 책 『공유인으로 사고하라』(갈무리, 2015)와 <http://commonstrans.net>의 여러 글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삶 말고는 부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 기쁨, 그리고 경탄의 모든 힘들을 포함하는 삶.”(John Rukin, *Unto This Last*, § 77)

11) 마키아벨리 Niccolò Machiavelli가 “잘 정비된 공화국은 공공을 부유하게 유지하고 시민은 가난하게 유지해야 한다”(『로마사 논고』 1권 37장)고 말했을 때 그는 자유로운 공동체에서 공통의 부의 필요성을 말한 셈이다. 이 공통의 부를 관리하는 권리가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사회의 최고의 권리 summum Civitatis Jus”이다.(『정치론』 6장 5절) 이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회 상태가 전통적으로 왕정, 귀족정, 공화정(민주정)으로 나뉘는 것이다.

커먼즈 패러다임이 자본의 패러다임의 뒤를 잇기 위해서는 자본이 이루어놓은 생산력보다 적어도 더 낮지는 않은, 바람직하기로는 더 높은 생산력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커먼즈 패러다임은 소유자, 생산자, 분배자의 통일을 전제로 한다. 우선 이윤의 제거는 생산에서의 낭비를 방지한다. 애초에 한 사회의 활력의 총합은 “각 개인의 활력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해 인도되듯이 인도되는 다중의 활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윤은 이 총합에서 빼내어진 것이며 자본가는 이윤을 이 총합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식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더욱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주된 부분은 아예 생산과정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이윤(이자)의 추출을 노린다. 이제 자본은 스스로를 (재)생산하면서 사회를 (재)생산하는 ‘생산의 제약’이 아니며, 생산에의 족쇄이다.

둘째, 모두에 의한 결정이 공통의 부가 가장 생산적으로 쓰이는 방향을 정한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란 공통의 부로 들어가야 할 것을 몇몇 개인들이 사유재산으로 축적하고 그 축적된 부의 사용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가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문제점은 왕정이나 귀족정의 문제점과 원리상 동일하다. 민주정 혹은 공화정에서도 다중의 결정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1인이나 소수의 결정에 맡기는 데 비하면 더 현명하고 더 안전하다.¹²⁾ 따라서 현재 축적된 모든 부를 가장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모두에 의한 결정을 통해서이며, 이렇게 관리된 부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것이다.

셋째,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재화 혹은 비물질적 생산물의 등장은 자본을 큰 곤란에 빠뜨렸다. 자본은 애초에 교환관계에서 나왔고 교환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에 기반을 둔다. 그런데 디지털 재화는 희소성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은 희소하지 않은 것을 희소하게 만들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울타리를 세워서 디지털 재화에의 접근을 제한한다. (‘제2의 종획’) 지식·정보·데이터는 자유롭게 공유될수록 사회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데, 자본의 ‘제2의 종획’은 이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커먼즈 패러다임에서는 디지털 재화는 전지구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되고 물질적 재화의 흐름은 지역에서 순환되는 것으로 기획된다.¹³⁾

커먼즈에서의 분배와 기본소득

소유자, 생산자, 분배자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커먼즈는 복지국가의 ‘재분배’를 넘어서 ‘선분배 pre-distribution’를 지향한다. ‘선분배’라는 용어는 예일대의 정치학자 해커 Jacob Hacker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이미 맑스가 사회화된 생산에서 추론했던 바 있다.

둘째 경우에는 전제 그 자체가 이미 매개되어 있다. 즉 공동체적 생산, 생산의 토대로서의 공동체성이 전제되어 있다. 개인의 노동은 처음부터 사회적 노동으로서 정립된다. 그래서 그가 창조하거나 그 창조작업을 돕는 생산물의 특수한 물질적 형상이 무엇

12)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고』 1권 58장에서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다. 스피노자도 이렇게 말한다. “안전하고 좋은 삶을 살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공동의 소유 아래 두어야 하며 이 권리는 더 이상 개인의 강함과 욕구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의 힘과 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신학정치론』 16장)

13)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전지구적 수준에서 디자인하고, 지역 수준에서 제조하라’(Design Globally, Manufacture Locally, DGM)이다. 이는 전지구적 규모의 오픈소스/오픈디자인 생산관을 지역 규모의 지역-네트워크 생산과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http://commonstrans.net/?p=797> 참조.

이든, 그가 자신의 노동으로 산 것은 특성의 특수한 생산물이 아니라 공동체적 생산에의 특성의 참여이다. 따라서 그는 교환해야 할 특수한 생산물이 없다. 자신의 생산물은 교환가치가 아니다. 생산물은 각자에게 일반적 성격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특수한 형태[화폐—인용자]로 옮겨져야 할 필요가 없다. 교환가치의 교환에서 필연적으로 창출되는 분업 대신에 각자가 공동체적 소비에 참여하게 되는 노동의 조직화가 발생한 다.(172. 밑줄은 인용자의 것.)

모두가 공동체적 생산에 참여하고 공동체적 소비에 참여하는 것은 커먼즈 공동체의 기본적 성격에 속한다. 여기서는 ‘선분배’가 필연적이다. 생산에 투여되는 힘들이 ‘언제나 이미’ 흘러넘치도록 충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자본주의의 현실적 작동에서 노동력은 판매됨으로써, 교환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즉 ‘사후에’ 사회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시 말해서, ‘사후분배’이다. 이러한 분배방식이 노동력의 재생산에 미흡하게 될 때, 그리고 노동자들의 힘이 강할 때 ‘재분배’가 ‘복지’의 이름으로 등장할 수 있다. ‘재분배’는 ‘사후분배’를 보완하지만,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사후분배’는 삶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판매되지 못한 노동력, 즉 발휘되지 못한 힘들의 낭비를 낳는데, ‘재분배’는 이 낭비를 다소 완화시킬 뿐이다.

우리에게는 나중에 최선으로 보충을 받아야 겨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힘이 아니라 이미 넘쳐흐르는 힘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힘의 과도함이야말로 힘의 증거이다.”¹⁴⁾ ‘선분배’에 기

반을 둔 커먼즈 패러다임은 맑스가 말한 “개인들의 보편적 발전과 그 공동체적, 사회적 생산성을 사회적 부로 삼는 데 기반을 둔 자유로운 개인성”(153)의 실현을 지향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전지구적 네트워크-‘커먼즈들의 커먼즈’-만이 지구에서의 삶이 처한 위기에 가장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기본소득은 ‘선분배’의 특정 국면, 특정 맥락에서의 이름이다.¹⁵⁾ 사실 ‘선분배’란 말은 ‘분배’, ‘재분배’ 등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연관된 용어들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근본적이지는 않다. (정상적인 가족의 경우 우리는 소득이 가족들 사이에 ‘분배’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분배’라는 말 대신에 삶의 활력의 유지 -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삶의 미래로의 투사를 위한 준비로서의 유지 -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살림’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리라. 자본의 관점에서 ‘household economy’(가정경제)가 확대되어 ‘political economy’(정치경제) ‘national economy’(국민경제)가 되었다면, 이제 삶의 관점에서는 한 집의 ‘살림’이 확대되어 사회라는 큰 집의 ‘살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결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든 우연한 일로든 오랫동안 성찰해온 과정의 끝에서든) 크게 바뀌는 ‘돈오頓悟’의 순간이 있지만, 그 사람의 몸과 정신이 전부 바뀌기 위해서는 ‘점수漸修’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변화도 이와 꼭 같다. 거대한 전환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점진적 변화의 연속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 점진적 변화 가운데 하나의 목표로서 인류의 시야에 떠오른 것이다.

14) Nietzsche, Friedrich, Twilight of the Idols or, How to Philosophize with the Hammer, trans. Richard Polt,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97, p. 3.

15) 커먼즈에서의 ‘선분배’는 파트너 국가에 의한 기본소득 정책 시행과 동일하지 않지만, 양자 모두 커먼즈 패러다임이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커먼즈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은 실제 커먼즈를 구축하는 운동보다 더 포괄적이다.